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포리즘> 워크숍

<보이지 않는 미술관에 접속하기: 프리즘과 디지털 접근성>





〈보이지 않는 미술관에 접속하기: 프리즘과 디지털 접근성〉

일정: 2022년 10월 27일 (목) 18:30

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프리즘>은 “연결 가능성을 위한 미술관의 미래 비전과 실천”이라는 의제 아래,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접근성을 고민하고 개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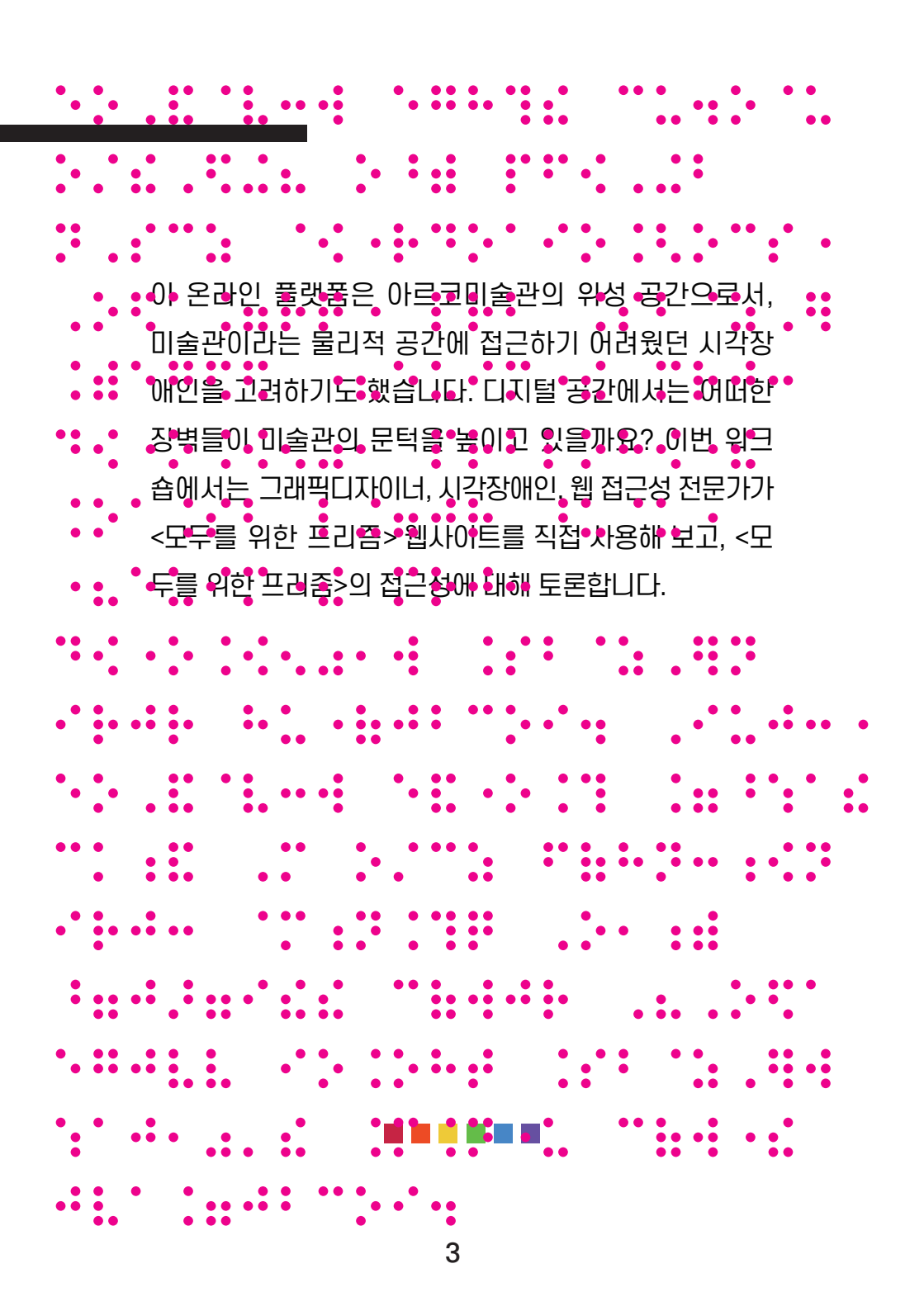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프리즘>에 접속하기  
[www.prism-for-all.art](http://www.prism-for-all.art)



<프리즘>은 물리적 공간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모두를 위한 프리즘>을 구현하였으며, 미술관의 전시, 홍보, 시설 등 각 사업 부분의 담당자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활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술관에 접속하기: 프리즘과 디지털 접근성>은 미술관의 공공성을 실험하는 여러 활동을 기록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프리즘> 웹사이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아르코미술관의 위성 공간으로서,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떠한 장벽들이 미술관의 문턱을 높이고 있을까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래픽디자이너,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가가 <모두를 위한 프리즘> 웹사이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모두를 위한 프리즘>의 접근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또한, 미술관의 물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을 논의해 '시각 문화와 디지털 접근성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확장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다'는 행위에서 소외되어온 시각장애인의 관점을 들어보고 보기를 넘어선 감각으로 경험하는 미술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 즉 '다성적인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세부 내용

분류

시간

참가자

주제

개최

18:30-18:35

아르코미술관

행사 소개

발제

18:35-19:15

민구홍

(작가, 디자이너, AG랩 디렉터,  
민구홍 매뉴팩처링)

이 웹사이트에 관해:  
일곱 빛깔 무지개

원희승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

색상 대체  
텍스트 작성 과정과  
그 의미

분류

시간

참가자

주제

토론

19:15-20:00

김정현  
(네이버 벨리)

시각 문화와 디지털  
접근성의 역할

김혜일  
(카카오 링키지랩)

남선미, 윤충근, 이지수  
(‘새로운 질서 그 후...’ 콜렉티브)

민구홍  
(작가, 디자이너, AG랩 디렉터,  
민구홍 매뉴팩처링)

모더레이터 전지영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 참여자 소개

### 참여자

김정현

네이버 웹 접근성 개선팀, 널리(NULL) 팀장

### 소개

- 널리는 웹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웹 접근성 개선 가이드, 웹페이지 제작을 위한 도구, 시각장애의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매년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비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널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자 소개

### 참여자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 링키지랩 팀장

### 소개

- IT 서비스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 장애인의 감각기관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성에 대해 탐구, 2014년부터 다음과 카카오에서 서비스 접근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다.
- 링키지랩은 카카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장애가 있는 이용자라도 어려움 없이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참여자 소개

### 참여자

남선미, 윤충근, 이지수

새로운 질서 그 후... '클렉티브'

### 소개

- '새로운 질서 그 후...'는 웹 언어와 웹 매체를 통해 작업하는 예술 실천 콜렉티브로 시각적인 형식으로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통해 컴퓨터 언어와 문법을 통해 웹 접근성 향상을 시도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이미지를 대체 텍스트로 전환한 웹사이트 '국립대체미술관'을 개발했다.



## 참여자 소개

### 참여자

민구홍

작가, 디자이너, AG 랩 디렉터,  
민구홍 매뉴팩처링 운영자 / '모두를 위한 프리즘' 웹사이트 디렉팅

### 소개

중앙대학교에서 문학과 언어학을, 미국 시적 연산 학교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SFPC)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 안그라픽스 출판 사업부와 워크룸을 거쳐 현재 AG랩에서 디렉터로 일하는 한편,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운영하며 '새로운 질서'에서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의 관점으로 코딩과 웹을 이야기한다.



## 참여자 소개

### 참여자

원희승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 멤버

### 소개

- 전맹 시각장애인 4인으로 구성된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의 일원으로 디지털 프리즘의 색상 대체 텍스트 작성에 참여했다.

- 인천해광학교 졸업, 송실대학교 음악원 관현학과 트롬본을 전공하였으며,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트롬본 수석 연주자이다.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해오고 있다.







아르코미술관